

## 계기

마크 11(Mark 11)은 1948년 영국왕립공군(RAF)의 내비게이션 시계로 샤프하우젠에서 처음 생산되었습니다. 마크 11은 기술적 기능 측면에서 표준을 정립했을 뿐만 아니라, 순수주의적 계기 디자인 또한 현재의 IWC 파일럿 워치 전체의 디자인에 영감을 불어 넣었습니다.

마크 11의 역사는 항공 역사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좀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내비게이션의 역사와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요즘에는 휴대 전화를 사용하여 미터기에서 지구상의 정확한 위치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현대의 위성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면 황야, 바다 또는 어두운 밤에도 정확한 위치 측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선박과 항공기에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일은 오랜 기간동안 커다란 도전 과제였습니다.

1930년대와 1940년대의 상업용 항공기 파일럿은 무선 송신소 또는 VFR을 사용한 비행을 통해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군대에서는 "추측 항법" 프로세스에 의존했습니다. 비행 속도와 비행 시간을 기준으로 적용 거리를 계산했습니다. 여기에 나침반에 따라 비행한 경로를 함께 고려하여 이론적인 위치를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비행 속도를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했으며 횡풍으로 인해 항공기가 경로에서 이탈할 수 있었으므로, 이 "추측 항법"은 실제 위치를 대략적으로 추정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2차 세계 대전 후 영국왕립공군(RAF)은 무선 송신소 또는 레이더 등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무선 송신소"의 범위는 300마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며, 지상 레이더를 통해 필요한 데이터를 바다로 전송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전자 시스템 관련 문제를 겪으면서 항공기 파일럿은 성능이 검증된 천문 항법 장치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상 운송에서 사용하는 이 절차는 태양, 달 또는 항성 등 천체에 기반하여 경도와 위도를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를 위해 정확도가 매우 높은 시계, 바로 육분의와 크로노미터가 필요합니다. 이 항해 장비는 조건이 완전히 다르고, 항공 우주 관련 요구 사항이 전적으로 요구되는 항공기 조종석에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항공기에 적합한 적합한 육분의가 상대적으로 일찍 개발되었지만, 안전한 비행을 가능하게 해주는 시계를 찾는 일은 더욱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RAF에서 사용한 초기 내비게이션 시계의 정확도는 사실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나 알루미늄 또는 크롬 도금 황동으로 만들어진 시계 케이스는 복해의 염분이 포함된 공기와 덥고 습한 아시아의 기후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목표에 접근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레이더 화면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레이더 화면을 통해 생성되는 강력한 자기장이 조종석에 있는 시계의 속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로 인해 RAF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내비게이션 시계를 개발하게 됩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1948년 IWC의 엔지니어들이 개발한 마크 11입니다. "내비게이터스 손목 시계 Mk. 11 - Stores Ref. 6B/346"은 스톱워치가 있으며, 최상의 정밀도를 자랑하는 칼리버 89가 특징입니다. 두 번째 주요 특징으로는 매우 효과적인 자기장 보호 기능을 들 수 있습니다. 그 당시 흔히 사용되었던 상자성 소재는 쉽게 마모되었기 때문에 IWC에서는 시계 상부를 구성하는 다이얼의 소재인 연철로 케이스를 만들었습니다. 시계의 전면 유리는 조종실 내부의 압력이 갑자기 떨어졌을 때에도 고정되어 있도록 특별 보호 장치를 갖추었습니다. 또한 다이얼에 형광 물질이 적용되어 야간이나 시야가 좋지 않을 때에도 쉽게 시간을 판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Mark 11은 기술적 측면뿐 아니라 외형적인 측면에서도 표준을 경립했습니다. Mark 11을 운행하는 동안, 이 내비게이션 시계의 디자인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1949년에 Mark 11이 출시되었을 때, 다이얼에는 "1"에서 "12"까지의 숫자가 있었습니다. "3", "6", "9", "12"시 방향에 위치한 작은 직사각형에는 형광 물질이 적용되었습니다. 1952년, 숫자 "12"는 양쪽에 점이 있는 삼각형 모양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이 삼각형은 현재 IWC 파일럿 위치의 가장 중요한 시각적 특징 중 하나입니다.

RAF는 15년 간 최고의 파일럿에게만 마크 11을 제공했습니다. 1960년대부터 영국 공군의 파일럿에게는 이 시계를 착용할 수 있는 특권이 부여되었습니다. RAF가 이 내비게이션 시계에 두는 가치는 영국 왕립 그리니치 천문대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마크 11의 유지보수 작업을 허용하지 않은 사실을 통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1년마다 시계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이루어지고 착용자의 움직임 패턴에 맞춰 정확한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RAF 역사상 어떠한 시계도 마크 11처럼 집중적인 유지보수가 이루어진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후 간섭을 받지 않는 무선 송신소 시스템이 도입되었지만, 마크 11은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예비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유지했습니다. 1981년 마크 11에 대한 운행이 중단될 때까지 이 시계는 남아공, 호주 및 뉴질랜드 등 다른 영연방 국가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샤프하우젠의 아이콘이 된 마크 11은 민간 항공사인 BOAC (영국 해외 항공)으로도 진출했습니다. 1970년대 초반까지 인도양을 가로 질러 호주로 운항하는 파일럿은 육분의와 마크 11을 사용하여 자신의 위치를 계산했습니다.

마크 11과 관련된 또 다른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뉴질랜드 출신의 에드먼드 힐러리 경(Sir Edmund Hillary)은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최초의 인물이었을 뿐 아니라, 1958년 육로를 통해 남극에 도달하기 위해 원정대를 이끌기도 했습니다. 뉴질랜드 공군 파일럿이었던 그는 이 원정 중에 현재 위치 파악을 위해 자신이 차고 있던 시계에 의존했습니다. 그 시계가 바로 IWC 샤프하우젠의 마크 11입니다.

### IWC 샤프하우젠

스위스 워치 매뉴팩처인 IWC 샤프하우젠은 1868년 창립 이후 기술 개발에 명확한 초점을 두고 그 가치를 담은 시계들을 제작해 왔습니다. 또한, 혁신적인 솔루션과 독창적인 기술력에 대한 열정으로 국제적인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고급 시계 부문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주요 브랜드의 하나로서 최고의 정밀 기술과 독보적인 디자인이 하나로 어우러진 오프 올로제리(Haute Horlogerie: 최고급 수공예 시계 제작)의 걸작들을 제작해오고 있습니다. 환경 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기업인 IWC는 환경 친화적인 제작 방식을 지향하며, 전 세계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단체들을 지원하고, 다양한 환경 보호기관들과의 돈독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 다운로드

이미지는 [press.iwc.com](http://press.iwc.com)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프레스 문의

IWC 샤프하우젠

Public Relations department

이메일 [press-iwc@iwc.com](mailto:press-iwc@iwc.com)

웹사이트 [press.iwc.com](http://press.iwc.com)

### 인터넷 및 소셜 미디어

웹사이트 [iwc.com](http://iwc.com)

Facebook [facebook.com/IWCWatches](https://facebook.com/IWCWatches)

YouTube [youtube.com/iwcwatches](https://youtube.com/iwcwatches)

Twitter [twitter.com/iwc](https://twitter.com/iwc)

LinkedIn [linkedin.com/company/iwc-schaffhausen](https://linkedin.com/company/iwc-schaffhausen)

Instagram [instagram.com/iwcwatches](https://instagram.com/iwcwatches)

Pinterest [www.pinterest.com/iwcwatches/](https://www.pinterest.com/iwcwatches/)

Google+ <https://plus.google.com/+iwcwatches>